

2013 ADEX 관람안내서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제4회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개척자들, 경계를 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북평화재단, 대전평화여성회,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무기제로, 문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생명평화연대,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평화의친구들

방위산업전시회의 진짜 이름은 살인무기전시회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무인기**, 축구장 서너 개쯤은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확산탄**, 음속의 속도로 하늘을 가르는 최신에 전투기들. 방위산업전시회에 전시된 화려한 무기들을 났을 잃고 바라보고 있노라면 잊기 쉬운 한 가지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은 든든한 무기들은 결국 지구 어느 한 구석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그의 삶의 터전을 산산조각 내는 살인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방위산업전시회의 진짜 이름은 살인무기전시회이며 무기들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의 핏값으로 차려진 죽음의 잔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0만 명 이상이 매년 무기로 인해 사망합니다

2600만 명 이상이 무력분쟁으로 집을 잃었습니다

8백만 정의 소형무기가 매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12억 발의 총알이 매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무기산업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산업이 아닙니다

무기는 누구의 손에 들려있어도 파괴와 죽음만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방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들 그 본질적인 속성이 가려질 수는 없습니다.

무기상인들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면 할수록 세계는 점점 더 평화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종종 **죽음의 상인**들은 수요를 창출해내기 위해 가상의 **안보불안**을 조장하며 군비경쟁을 부추깁니다. 무기상인들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면 남길수록 그 국가에서 교육, 보건, 복지에 사용될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10억 달러(1조 7백억원)로 살 수 있는 것들



“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과, 발사된 모든 로켓은 궁극적으로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다.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제42, 43대 미국대통령>



무기상인 마틴의 비밀수첩 - 용어편

방위산업 무기가 '방어'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일으켜 산업 전반에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마법의 단어. 무기산업이 분쟁을 부추기고 분쟁지역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핏값으로 이득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가려줄 수 있는 기만적인 용어이기도 하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이라크 전쟁 당시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지칭하던 "부수적 피해"가 있음.

죽음의 상인 20세기 초 거대 군수산업체가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 무기판매상을 보내던 때 등장한 단어. 죽음의 상인은 분쟁의 양쪽 당사자에게 무기를 판매하며 정부 관료들을 매수하고 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국제무대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수요를 창출한다.

국가안보 방위산업의 무한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마법의 단어. 국가 지도자가 단호한 표정으로 사용할 경우, 이 단어는 진짜 안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복지 등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불요불급한 무기들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다. "잠재적 위협"과 같은 단어와 같이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소형무기 권총, 소총, 휴대형로켓포 등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류를 가리킨다. 무기 개당 단가는 크지 않지만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수요가 제기되는 호도 상품. 전 세계 무기로 인한 사상자 중 60%는 소형무기로 인한 것이다.

확산탄 수많은 소폭탄을 내장한 일종의 다발 폭탄. 축구장 3,4개 정도를 일거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살상능력을 보여주고, 상당수의 불발탄을 남겨 한 지역을 완전히 황폐화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 국제사회에서는 비인도적무기로 낙인 찍혀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되었고 현재 113개국에서 완전히 금지되어 판로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무기다. 이번 ADEX 참가업체 중에는 한화, 풍산, 텍스트론, 록히드마틴이 확산탄을 판매하고 있다.

무인기(드론)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 비행체를 띄워 수천 Km 밖에서 게임 하듯 전투 및 정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최첨단 무기. 지난 10년간 예멘, 파키스탄 등지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민간인만 3천 명을 훌쩍 넘는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 장치가 부재하다. 지금이 판매 적기. 현재 전세계적으로 드론금지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드론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 및 개발을 중단할 것을 각국에 권고 했지만 아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은 부재한만큼 생산, 개발, 배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

죽음의 잔치를 멈춰라

방위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삼자구요?

2010년 10월, 한국정부는 방위산업 수출 규모를 2020년까지 연간 40억 달러 수준으로 올려 세계 7위 방산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방위산업 육성, 방산업체의 더 많은 수출은 세계에 더 많은 무기들이 공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지구상에는 인류를 몰살시키기에 충분한 수의 무기가 존재합니다. Made in Korea가 찍힌 무기가 세계 곳곳의 전장을 누비며 누군가의 몸과 삶의 터전을 산산조각 내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어야 할 미래일까요? 지구촌 어딘가에서 흘리는 핏값을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생각을, 우리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계 100대 무기생산기업의 연간 무기판매액(중국 제외)

\$465,500,000,000 (2010년 기준, 국방기술물질원, 세계방산시장연감 vol.1, p.7)
(약 494조 원)

LOCKHEED MARTIN
We never forget who we're working for™

재래식무기 국제거래 연간 계약규모

\$85,300,000,000 (약 90조 원)

(2011년 기준, CRS Report Conventional Arms Transfers to Developing Nations, 2004-2011)

BAE SYSTEMS

BOEING®
Forever New Frontiers

NORTHROP GRUMMAN



죽음의 상인들의 손발을 묶어야 합니다

각국이 방위산업 진흥에 나서는 한, 세계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무기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무기산업의 육성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개최되는 방위산업전시회를 멈춰야 합니다. 아울러 무기수출 및 무기도입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해 이러한 위험한 거래를 공공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핏값으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를 평화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무기로는 결코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